

“시는 고통 잊게하는 희망의 노래, 아픔 치유하는 선물”

“시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노래가 됩니다. 또한 아픔을 치유하는 선물이기도 하죠. 저의 시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새로운 힘을 얻었으면 합니다.”

3살 때 불로 사고로 장애를 입고 50년 가까이 장애인으로 살아온 시인이었다. 한때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에 빠진 적도 있다”는 김소연 시인이 그 주인공.

올해 53세인 시인이 제20회 풀잎문학상 수상 시집 ‘내 인생의 보석상자’ (그림과 책)를 펴냈다. 시인은 지난 10월 서구문화센터 갤러리에서 5일간 시화전을 열기도 했다.

이번이 세 번째 시집인 시인은 “어느 날 글을 쓰면서 위로를 받았고 시인으로 등단했다”며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김 시인은 어렸을 때 뜻하지 않은 사고로 머리를 다쳤다. 고모가 업고 재우다가 계단에서 떨어뜨려 머리를 다쳤다. “식물인간 상태로 4개월간 누워 있다가” 의사가 포기하고 산소호흡기를 떼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깨어났다는 것이다.

문학적인 표현을 하자면 “극적인 순간이자 드라마틱한 상황”이었다. 뇌수술을 받았지만 성장하면서 한쪽 팔과 다리가 약해졌고 “한쪽 다리는 심한 장애” 상태. 이후의 삶은 어땠는지 짐작이 간다.

“친구들이나 주변으로부터 놀림을 받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너무



장애인 시인 김소연 제20회 풀잎문학상 수상 시집 ‘내 인생의 보석상자’ 펴내

괴로워서 자살 시도도 했어요. 그러다 18세 무렵 인생에 전환점이 시작됐죠.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위로와 관심에 용기를 얻었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가 시를 쓰게 된 계기는 아이들이 엄마 인생 이야기를 글로 써보라고 권유를 하면서였다. 틈틈이 시를 썼고 몇 군데 공모전에 투고를 했다. 그러다 월간 ‘시사문단’을 통해 등단의 결실을 맺었다.

김 시인은 “시를 통해 고통을 견디게 되고 내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다”며 “세상에

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생각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마음속에 있는/ 보석상자 열면/ 눈이 부시게 밝은 빛 한 아름/ 내 가슴에 들어와/ 어둠계만 보이던 내 운명을/ 밝고 아름다운 향기로 물들인다 //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걱정/ 하늘의 뒤편으로 둘러보내니//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맑고 청아한 아침햇살로/ 나를 맞이하는구나”

표제시 ‘내 인생의 보석상자’는 작품집에서 궁극적으로 시인이 말하고 싶은 주제를 담고 있다. 누구나 마음속에 보석상자를 품고 있는데 그것을 열어보길 바란다는 내용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에서도 걱정은 ‘하늘의 뒤편’으로 돌리고 마음을 다잡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거북이들은 맹수의 먹이가 되지 않으려고 전력 질주를 합니다. 살아남은 거북이는 탄탄한 갑옷으로 무장한 ‘강한 거북이’로 성장합니다.”

그는 홀로 걸어가야 하는 쓸쓸한 인생길이지만 노력한다면 반드시 동행해주는 이가 나타날 거라고 조언한다.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시인인 신원석 평론가는 해설에서 “시는 시를 쓴 시인과 시를 읽는 독자의 마음을 겹치게 하는 힘이 있다”며 “김소연 시인의 ‘내 인생의 보석상자’를 통해 독자들도 생의 깊은 상처를 품고, 푸른 하늘로 함께 날아오르기를 바란다”고 평한다.

한편 김 시인은 시집 ‘희망의 속삭임’을 펴냈으며 빈어백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 ‘빛고을 힐링콘서트’에서 미술사 김영록이 변검 공연을 펼치는 모습. (한국감성충전&웃음치료연구소 제공)

노래·유머 넘치는 ‘빛고을 힐링 콘서트’

한국감성충전&웃음치료연구소, 15일 남구문예회관

아코디언, 대중가요, 벨리댄스 그리고 미술과 색소폰까지- 노래와 유머가 넘치는 ‘힐링 콘서트’.

한국감성충전&웃음치료연구소(소장 양석승)가 ‘제42회 빛고을 힐링콘서트’를 오는 15일 오후 2시 남구문예회관에서 펼친다. 양석승 소장이 기획했으며 사회는 ‘한 많은 무등산’ 등을 발표한 가수 채초가 맡을 예정이다.

타이틀곡 ‘내 고향 진도’를 발매한 손희종의 ‘추억의 소아곡’, ‘울며 헤진 부산항’으로 시작하는 공연은, 시니어 전국가요제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던 이명희 ‘풍악을 울려라’, ‘진도배기’로 이어진다.

이어 양석승 소장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 ‘사랑이 비를 맞아요’ 등 나훈아와 배금성 노래를 부른다. 이채현은 자신의 곡 ‘사랑이란 그 이름’ 등을, 민심은 ‘당신뿐이야’, ‘운명’을 들려준다.

타이틀곡 ‘세월도둑’으로 활동한 이소리의 색소폰 메들리도 레퍼토리에 있다. 김영록 미술사가 선사하는 중국 변검, 김정희의 벨리댄스 및 최동남의 아코디언 연주 코너도 마련된다.

이외 선민균, 연우, 전유창, 은빈, 신동석 및 최동남, 아인 등이 저마다 멜로디를 올려 퍼뜨린다.

양석승 소장은 “광주, 전남에서 오래 활동해 온 출연진들이 음악을 통한 ‘힐링’이라는 목표 하나로 열심히 콘서트를 준비했다”며 “행운권 추첨 등 관객들이 즐길 만한 코너도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양 소장은 광주대 경찰·법·행정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한국감성충전&웃음치료연구소를 개소했다. 이후 16년간 41회에 걸쳐 무료로 힐링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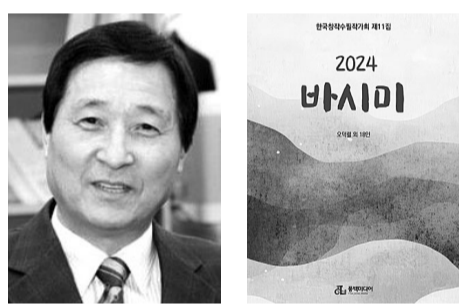
다양한 글과 소식...수필 연간집 ‘바시미’

한국창작수필문인협회 출간 오덕렬·곽성숙 등 19인 52편

‘바시미’라는 용어가 있다. 한옥 기와집의 처녀가 들린 부분을 일컫는 건축용어다. 우리 한국에만 있는 고유한 미를 그렇게 지칭한 것. 벼선의 코가 올라간 부분도 바시미라고 부른다.

한국창작수필문인협회(이사장 오덕렬·사진)가 올해 수필 연간집 ‘바시미’를 펴냈다. 광주 출신 수필가로 광주교 교장을 역임한 오덕렬 수필가가 주축이 돼 활동하는 협회는 이번 연간집에서 다양한 글과 소식을 담았다. 특집으로 ‘어머니’를 주제로 회원 15명의 개성적인 작품을 수록했다.

책은 문학의 실험정신이 깃든 오덕렬의 가사 수필 ‘1000의 얼굴’이 문을 열고, 낱말 하나하나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곽성숙의 ‘문득’과 ‘부터’로 문을 닫는다. 또한 장인순, 윤상현, 하현규, 최광식, 김광렬, 박형숙, 문에자, 김옥례, 안순례, 박옥주, 윤옥현, 박형선,



송영문, 이정남, 강순일, 정시연, 김창승 등 회원 19인 52편의 개성적인 작품이 독자를 맞는다.

“제1회 바시미 문학상”을 수상한 하현규 회원에 대한 내용도 있다. 시상식은 14일 조선대 평생교육원 109 강의실에서 ‘수필의 날’ 행사와 함께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오덕렬 이사장은 “올해 연간집 ‘바시미’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2025년 3월 1일 ‘한국창작수필’을 창간과 연계된다”며 “그 기치는 수필의 통합으로 ‘산문수필’과 ‘창작수필’의 한집 살림을 펼쳐나간다는 데 있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

국가유산진흥원, 총서 발간

국가유산진흥원은 올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도전하는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소개하는 총서를 펴냈다고 13일 밝혔다.

장 담그기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폭넓게 전승돼 온 전통 음식문화다. 장이라는 음식뿐 아니라 재료를 준비해 장을 만드는 과정을 아우르며, 다음 달 파라과이에서 열리는 제19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된다.

책자는 한국 음식의 맛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장을 폭넓게 다룬다. 콩을 발효해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 먹는 과정부터 역사,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 음식 문화로서의 의의, 현대적 전승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했다.

진흥원은 국문 800부, 영문 900부 등 총 1700부의 책자를 제작해 교육청 직속 공공도서관과 유네스코 인가 비정부기구(NGO), 한국학을 가르치는 해외 대학 등에 배포했다.

최영창 국가유산진흥원장은 발간사에서 “우리의 소중한 무형유산을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총서는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에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전남문화재단, ‘지역 예술대학 순회 설명회’ 성료

미래 예술가들에게 창작 발판을 마련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순회 설명회’가 최근 성료했다.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재단)은 9월부터 지역 예술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지역 예술대학 순회 설명회’를 최근 마무리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총 3회 진행했으며 지역 예술대(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재학생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9월 조선대 미대를 시작으로 지난 1일 전남대 음악학과, 7일 목포대 아트엔지니어링부·미술학과에서 강의를 하며 총 200여 명이 참여했다.

재단 김은영 대표이사(조선대 박사)를 비롯해 임지연 소프라노(전남대·여수시립합창단 상임단

원), 박인선 작가(목포대·광주비엔날레 전시 등 참여) 등 해당 대학 선배들이 예술가로 발돋움하는 노하우를 ‘특강’했다.

아울러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과 예술인 복지, 문화예술교육지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분야별로 1:1 상담 시간을 제공, 예술 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김은영 대표이사는 “올해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기획해 학생들을 만나고 싶다”며 “에비 예술인에게 ‘지역문화 예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전달하고, 이들을 문화예술계로 입문시키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